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7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5 SINCE 1991 kjdaily.com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음력 9월 27일)

호남삼육중 졸업생 '지역인재전형' 지원 길 열린다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제 논란 '각종학교' 중졸 자격 포함
요건 추가 2028학년도 대입 적용 전망
동일 기준 '지역의사' 구제 여부 주목

〈속보〉2028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에서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의 지원 자격이 박탈돼(본보 10월19일·20일자 1면) 학생·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학력 요건을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에서 법적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대 의약계열·간호대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의 지역인재 자격 요건 중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규정과 관련한 중학교 범위에 각종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5호)·특수학교(4호) 등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가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온라인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자격 요건의 중학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입학 기회를 더욱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4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에서 지역 중학교 졸업 요건을 추가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로만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 중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2028학년도 입시부터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돼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졌다.

본보의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전형 관련 최초 보도 이후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달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국립대학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엔 호남삼육중 출신 고2 학생 7명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호남삼육중 졸업생 비대위에 참여 중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때 이러한 제한 조건이 적용될 줄 몰랐던 만큼 구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각종학교든 일반학교든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구제 대책을 마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대입에서 최초 도입된 지역의사전형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각종학교 출신 수험생의 지원이 원천 차단된 만큼 지역의사법 개정 등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후속 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정 기자

Today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그림의 떡' 6면
정지효 작가의 'Happy-Bus-Day' 9면
전남광주 다문화 출생아 5년새 20%↓ 13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기아가 광주공장에 수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생산라인 증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산업과 기업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기아AutoLand 광주공장 전경. /김애리 기자

기아, 광주공장에 수조원 투자…미래차 생산라인 증설

오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예정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시설 확충
삼전·SK하이닉스·앰코 이어 경사
지역 산업·기업 생태계 확장 기대
전남광주시·전남대·GIST와 협약

기아가 광주공장에 수조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시설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조성,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대 반도체 패키징 공장 증설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면서 지역 산업과 기업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5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직원 소통행사 '공감톡톡'에서 "6일 자동차 생산라인 증설과 수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6일 오토랜드광주(광주공장)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완성차 생산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산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SDV는 차량의 주행과 안전, 편의 기능 등을 소프트웨어로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자동차다. 차량 출고 이후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제조공정을 갖추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신규 차종, 시설 조성 일정 등은 기아가 배포할 자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하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 광주공장은 지난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52만2천268대를 생산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전용 전기차 생산도 본격화했다.

여기에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역량까지 더해지면 광주공장은 기존 완성차 생산기지를 넘어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전자제어 기술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차체와 배터리, 구동장치뿐 아니라 각종 센서와 통신장비, 전자제어시스템 등 첨단부품이 필요하다.

지역 부품업체들이 기존 기계·구동계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지역업체의 신규 공급망 참여와 실제 생산 물량 확대 여부는 향후 공개될 기아의 세부 계획과 부품 조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남광주시와 기아,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등은 이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미래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권역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과 실증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전남대와 지스트는 자율주행·AI·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현재 광주권역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0여대를 먼저 도입한 뒤 내년 1월까지 총 200대 운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